

2016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교회의 실패와 교회의 하락과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과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단계들

메지시 15

교회의 단계들

(4)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경: 계 3:7-22

- I.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주님께서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으키신 형제들을 통해 회복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예시한다—계 3:7-13.
 - A. 헬라어로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을 의미한다—계 3:7.
 1.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언적으로 형제 사랑의 교회, 즉 합당한 교회 생활을 묘사한다—계 3:7.
 2.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거합니다”—요일 3:14.
 - a.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근원, 본질, 요소, 범위에서 벗어나 생명이라는 근원, 본질, 요소,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요 3:3, 5-6, 5:24.
 - b. 형제들을 향한 사랑(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강한 증거이다—요일 3:14.
 3.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요일 3:16.
 - a. 형제들을 위한 사랑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리는 마음이다—갈 5:13.
 - b.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온전케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의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 B. 형제 사랑의 교회에게, 주님은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회복된 교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분별되어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할 수 있다—계 3:7.
 - C. 형제사랑의 교회에게, 주님은 또한 다윗의 열쇠, 곧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로서, 열고 닫는 권위가 있으시다—계 3:7, 사 22:22.
 - D.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계 3:8.
 - E.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강하고 능력있는 교회로 여겨서는 안된다. 주님께서 그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계 3:8.

F. 모든 이단과 전통에서 순수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른 모든 이름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회복된 교회의 가장 고무적인 증거이다.

II.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를 예시한다—계 3:14-22.

A. 헬라어로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이나 평신도들의 의견, 판단’을 의미한다—계 3:14.

B. 주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미진근함과 영적 교만이다—계 3:16-17.

C.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계 3:18.

1. 성경에서, 작용하며 일하는 우리의 믿음(갈 5:6)은 금에 비유되고(벧전 1:7),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곧 그리스도의 신성은 금으로 예표된다(출 2:11).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벧후 1:1, 4-5).

2. 흰옷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가 살아 낸 주님 자신이며,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가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덮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3. 그들의 눈에 발라야 하는 안약은 기름 바르시는 그 영(요일 2:27)임이 분명하며, 이 영은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 하)이신 주님 자신이다.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자신의 눈먼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러한 안약이 필요하다(참고 욥 42: 5-6).

D.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계 3:20.

1. 이 문은 개인들의 마음의 문이 아니라, 교회의 문이다.

2. 문은 교회의 문이지만, 이 문은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열어야 한다. 주님은 교회 전체를 다루고 계시지만, 주님으로 잔치하기 위해 주님의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이어야 한다.

E.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앉도록 해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계 3:21-22.

1. 여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의 미진근한 것과 교만을 이기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유일한 이기는 이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기는 이들을 포함하신다.

2.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은 이기는 이가 받는 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기는 이가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장차 올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